

광주 FC, 내일은 매직넘버 잇고 '복수혈전'



경매 나온 전설의 방망이

베이브루스 500홈런 배트 가격 관심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전설 베이브 루스의 500홈런 야구배트가 경매에 나왔다. 역대 스포츠경매 최고가를 경신할 지 관심을 모은다.

AP는 17일 "베이브 루스가 1929년 8월 12일 개인 통산 500번째 홈런을 터뜨렸을 때 쓴 야구 배트가 경매 시장에 나와 28일 입찰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루스는 1940년대 중반 절친한 친구였던 짐 라이스 미국 뉴욕주 서면 시장에게 이 배트를 선물했다. 500홈런 배트는 라이스 시장의 아들인 테리 라이스가 물려받았다.

테리 라이스는 AP와 인터뷰에서 "루스의 500홈런 배트는 우리 가족 삶의 일부였다. 아무도 이 배트를 만지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경매를 주관하는 SCP옥션은 "베이브 루스가 1923년 개막전 당시 친 홈런 배트가 2004년 126만 달러에 팔렸다"며 "이번 배트는 최소 100만달러(약 12억원) 이상에 입찰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최종 입찰가는 수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해당 배트는 루스의 500홈런 배트이자 메이저리그 최초의 500홈런 배트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단순히 야구 기념품을 넘어 미국 문화유산의 위상을 갖고 있다.

특히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프로스포츠 선수로 꼽히는 루스가 사용했던 배트라는 점에서 가격은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

지난 6월엔 루스가 1928-1930년 뉴욕 양키스에서 입었던 유니폼이 경매에서 564만달러(약 67억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역대 스포츠경매 최고가였다.

/연합뉴스



내일 오후 1시 안양과 홈경기...지난 8월 1-7 대패 설욕 승격 매직 넘버 2...A매치 휴식기 거치며 공·수 완벽 준비 전남드래곤즈, 홈에서 부천 상대 4연승 도전

우승에 '2승' 남겨둔 광주FC가 안방에서 안양 설욕전에 나선다.

광주는 19일 오후 1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FC 2019 K리그2 33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올 시즌 종료까지 4경기를 남겨놓고 있는 광주는 19승 10무 3패(67점)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2위 부산아이파크와는 승점 7점 차. 앞으로 광주가 2승을 더하게 되면 부산의 성적과 상관없이 자력으로 우승 결승선을 통과한다.

자력 우승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광주에 이번 경기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바로 '설욕'이라는 키워

드가 이번 경기에 담겨있다. 광주는 지난 20라운드 안양 원정경기에서 시즌 첫 패를 기록했다. 내용도 충격적이었다.

앞선 19경기에서 8실점의 잔물 수비를 보여줬던 수비진이 흔들리면서 광주는 안양에 1-7 대패를 당했다. 안양전 패배 이후 광주는 8월 4경기에서 4무에 그치면서 우승 행보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A매치 휴식기를 보낸 광주 선수들은 이번 경기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 광주는 대패를 설욕하고 안방 강세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올 시즌 광주는 안방에서 치른 16경기에서 11승

5무를 기록하면서 홈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다. 특히 최근 4경기는 모두 승리로 장식하는 등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의 막판 뜨거운 질주에는 '브라질 듀오' 펠리페와 윌리안이 있다.

팀 내 최다 득점(17골)자인 펠리페는 복귀 후 투톱 파트너 김주공과 좋은 호흡을 과시하면서, 2선 지원들과의 연계 플레이를 더해 상대 수비진을 흔들고 있다.

윌리안은 최근 5경기에서 4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펠리페를 대신해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줬다. 또 화려한 드리블과 돌파로 측면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연승을 이어갔다.

여기에 재활을 끝낸 부주장 여름을 비롯해 최준혁, 아슬마토프, 여병훈 등이 복귀하는 등 광주는 최상의 전력으로 안양전을 꾸려갈 수 있게 됐다.

광주가 안양을 꺾고 설욕전을 펼치며 승격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주목된다.

전남드래곤즈도 4연승과 함께 4강 꿈에 도전한다.

전남은 19일 오후 3시 광양전용구장에서 부천 FC를 상대로 4연승을 노린다.

전남은 최근 3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막판 순위 싸움의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최하위 싸움에서 벗어나 6위까지 치고 오른 전남은 5위 아산과는 승점 3점 차, 4위 안산과는 승점 6점 차다. 아직 4강 가능성은 남아있다.

여기에 부천전 이후 1위 싸움 중인 부산과 광주를 잇달아 만난 뒤 최종전에서 안산과 맞대결을 갖는 만큼 전남은 K리그2 최종 순위의 키를 쥐고 있다.

전남이 부천전 승리로 순위싸움을 불을 붙일지 K리그 팬들의 시선이 광양에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 "북한 플레이 거칠어 안 다친게 다행"

한국 축구대표팀 귀국...경기장 밖 북측 통제 받아

"거칠었던 경기였습니다. 안 다친 것만으로 다행이었습니다."

지난 15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북한과 2022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H조 3차전을 0-0으로 마친 한국 대표팀이 중국 베이징을 거쳐 17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

한국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은 북한 선수들의 플레이가 매우 거칠었다고 전했다.

손흥민은 "상대가 많이 거칠게 나왔다. 심한 욕설이 오가기도 했다"며 "북한의 작전이었을 수도 있지만, 누가 봐도 거친 플레이를 했고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안 다쳐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다"며 "이번 경기에서 부상 없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벤투 감독도 "전반전 경기력이 특히 좋지 못했고, 상대는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잘 저지했다"며 "후반 들어 경기력이 나아졌지만, 심판 때문에 경기가 자주 중단됐다"고 전했다.

그라운드에서 나섰던 선수들과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매우 거친 플레이로 한국 선수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대표팀과 함께 평양에 다녀온 최영일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은 "여태 축구를 보며 그런 적은 처음이다"며 "북한이 그런 스타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주 거칠었다"고 말했다.

한국과 북한의 경기를 관전한 요아킴 베리스트 팀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는 자신의 SNS에 한국과 북한 선수들이 충돌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평양원정에서 사상 초유의 감감히 경기를 한 벤투호는 경기장 밖에서도 북한 측의 통제를 받으며 사실상 고립됐다.

북한에 머무는 동안 선수들은 경기나 훈련 등 공식 일정이 있던 시간 외에는 숙소인 평양 고려호텔에만 머물렀다.

평양을 떠나기 위해 출발하기 전까지는 호텔 밖으로 전혀 나가지 못했고, 호텔 직원들도 꼭 필요

한 말 외에는 질문에 답조차 거의 하지 않았다. 선수들은 주로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며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음식도 호텔 내 식당으로만 해결했다.

한국 대표팀은 현지 식자재 조달의 어려움 등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고기·해산물 등을 챙겨갔지만, 북한은 별도의 사전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물품이라 트집을 잡아 평양에 갖고 들어가지 못했다.

경기 당일 현장에서도 '고립'은 이어졌다.

15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경기는 한국에 생중계되지 않았다. 한국 취재진의 방북도 무산되면서 실시간으로 소식을 알 수가 없었다.

대한축구협회 직원이 김일성경기장 내에서 이메일로 기본적인 현장 정보를 국내로 전달 예정이었지만, 경기장 내 인터넷이 끊겨 아마저도 이뤄지지 못했다.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보유한 아시아축구연맹(AFC) 경기감독관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AFC 본부에 알리는 정보를 대한축구협회가 전달받아 국내 취재진 등과 공유하는 등의 보기도 문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역시, 메시!

3회 연속 유러피언 골든슈

2018-2019시즌 36골을 쏟아낸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통산 6번째이자 3회 연속 '유러피언 골든슈'의 기쁨을 맛봤다.

FC바르셀로나는 17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메시가 통산 6번째 유러피언 골든슈를 수상했다"고 발표했다.

'유러피언 골든슈'는 한 시즌 동안 유럽 무대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에게 주는 상이다.

메시는 지난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34경기에 출전해 36골을 쏟아내 걸리안 음바렐(파리 생제르맹·33골)을 따돌리고 '유러피언 골든슈'의 주인공이 됐다.

이로써 메시는 2009-2010시즌(34골), 2011-2012시즌(50골), 2012-2013시즌(46골), 2016-2017시즌(37골), 2017-2018시즌(34골)에 이어 2018-2019시즌(36골)까지 통산 6번째 '유러피언 골든슈'를 품에 안았다.

특히 메시는 통산 4차례 수상한 '라이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와 격차를 더 벌였다.

메시는 "이번 수상의 영광을 가족과 팀 동료에게 돌린다"라며 "팀 동료가 없었다면 이번 상은 받을 수 없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